

국내외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ESG 동향 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e-mail:hppark@kict.re.kr

A Preliminary Study on the ESG Direction of Construction Engineering Companies

Hwan-Pyo Park*

*Construc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요약

최근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탈탄소화 등에 따른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ESG 경영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외국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체의 ESG 추진을 벤치마킹하고, 국내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체의 ESG 추진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NR 225 Top International Design Firms 중에서 상위 20위 기업은 대부분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선진 기업들은 설계단계부터 ESG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11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체와 한미글로벌의 ESG 추진 실태를 분석한 결과, 5개 업체만 ESG 경영을 통하여 국내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친환경적인 설계를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 산업 안전,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기업윤리, 공정경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주주권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서론

최근 금융감독원은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국내 기업들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ESG의 개념은 2004년에 UNGS(UN Global Compact)가 발표한 'Who Cares Win'의 보고서에서 최초로 언급하였다. ESG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외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 그러나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자산 규모가 영세하여 ESG 경영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외국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체의 ESG 추진을 벤치마킹하고, 국내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체의 ESG 추진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ESG 동향

2.1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ESG 동향 분석

ENR Top International Design Firms에 따르면 2022년 Top 225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매출액은 7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증가하였다[2]. 특히 한국의 해외매출액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5억 달러이고, 매출액 점유율은 0.9%로 저조한 실정이다. 225개 기업 중에서 한국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수는 11개 업체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고, 토목분야 9개 업체, 건축분야 2개 업체가 포함되었다[3]. 최근 해외 건설엔지니어링기업들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탈탄소화 등에 따른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추구하고, ESG 경영을 수행하고 있다. ENR 225 Top International Design Firms 중에서 상위 20위 기업은 대부분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선진 기업들은 설계단계부터 ESG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미국 ENR(Engineering News Record) 선정 상위 10위권 이내의 글로벌 설계기업과 CM기업 중에서 중복되는 기업을 제외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실태조사 분석하였다. 모든 설계 및 엔지니어링업체들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선진 기업들은 설계단계부터 ESG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설계 및 CM기업들은 ESG 경

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친환경 건축 및 설계와 안전보건 강화,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즉 선진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은 ESG 경영목표를 두고,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해외 건설엔지니어링기업들은 글로벌 건설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ESG 경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이에 맞추어서 ESG 경영 추진과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2.2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ESG 동향 분석

국내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체(11개 업체)와 한미글로벌의 ESG 추진 실태를 분석한 결과, 5개 업체만 ESG 경영을 통하여 국내 ESG 평가기관으로 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표 1]. 삼성엔지니어링, 한미글로벌, DL이앤씨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하여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홈페이지나 기업 IR보고서 및 E-브로슈어에 ESG 경영의 일부 내용을 공시하고, ESG관련 ISO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설계단계부터 ESG 평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표 1] 2023년 한국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ESG 평가결과

ENR 순위 (2022년)	업체명	매출액 (백만 달러)	한국ESG기 준원	서스틴베 스	Sustainalytics
50	삼성ENG	240.5	A	A	30.6
69	도화ENG	122.1	B	BB	-
93	삼우종합건축	70.0	-	-	-
103	DL이앤씨	56.1	A	BB	26.9
113	한국전력기술	46.9	-	-	29.7
144	건화	24.7	-	-	-
145	한국종합기술	24.4	C	AA	-
148	유신	22.7	-	-	-
172	희림종합건축	16.8	-	-	-
189	수성ENG	12.8	-	-	-
213	SK에코플랜트	8.2	-	-	-
11개사		645.2			

※ ENR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2023.8 참조

또한 ESG 경영 평가항목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내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참여 기술인과 사업자의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투자실적, 중복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ESG 추진과 연계성이 미흡하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사후평가의 평가항목 중 친환경 설계, 재해율 등과 같이 ESG 평가항목과 유사한 것이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ESG 경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3.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ESG 추진방향

최근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제 ESG 환경에 맞게 ESG 경영을 준비하고 이에 맞는 세부 전략수립과 추진을 해야 한다.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영세하지만, 기업의 ESG 경영의 이미지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설계 및 안전설계, 그리고 투명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친환경적인 설계를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 산업 안전,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기업윤리, 공정경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주주권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와 같이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안전사고 감소 등의 정책보다는 친환경 설계와 품질경영, 안전경영, 부패방지경영 등의 국제표준인증 취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ESG 요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하고 있으며, ESG 관련 요인이 기업의 신용 등급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이를 위해 ESG 경영을 내부에 내재화시키고,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향후에는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에서 ESG의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박환표, “국내 건설기업의 ESG 평가 및 대응방안”, 한국건축시공학회지, 한국건축시공학회, 통권 122호, pp. 785-796, 2023. 12
- [2] ENR, “Top International 225 Design Firms”, 2023. August
- [3] 해외건설협회, “ENR 기준 2022년 해외건설 ENG사 매출 분석”, 해외건설저널, 해외건설협회, pp. 27-31, 2023년 3분기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4년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요사업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project no. 20240089-001, 건설정책 및 건설관리 발전전략)